

제10호 / '14.7.11(금)

지부교섭 속보

**기본급 159,614원 인상!
통상임금 현실화!
임금체계 개악 저지!
자녀돌봄휴가 쟁취!**

■발행처:선전부 ■발행인:조민제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결국 지부교섭 결렬!!



10차 교섭에서 결렬

지부교섭이 결국 결렬되었다. 지난 4월 17일부터 3개월간 진행된 지부교섭은 결국 10차 만에 멈추게 되었다. 10일 코스모링크에서 열린 10차 교섭에서 사측의 3차 제시안이 나왔지만 지부 교섭위원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지부는 사용자 측의 진전된 안이 나올 때까지 교섭을 당분간 열지 않겠다고 결렬 선언을 했다.

첫 임금제시안 나왔지만..

이번 교섭에서 사용자측은 3차 제시안을 통해 처음으로 임금인상 최저단일액을 제시했다. 기본급 13,000원 인상이 그 내용이다. 아무리 최저선을 정하는 최저단일액이라지만 13,000원은 심하다. 사용자들이 모여서 임금제시안을 고민했다는 게 고작 13,000원 인상이라는 건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지부의 최저단일액은 임금인상이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사업장의 투쟁을 지부 전 조합원들이 함께 싸워서 쟁취

하겠다는 의미이다. 지회 보충교섭에서 최저단일액 이상의 금액으로 임금인상이 논의되었지만, 어떤 곳은 지부의 최저단일액이 올해 임금인상액이 될 수도 있다. 그만큼 올해 최저단일액은 그저 상징적으로 합의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외 나머지 요구안에 대해서는 지난 2차 제시안에서 전혀 진전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결렬기간 동안 논의할만한 안 나와야

지부는 사용자 측에서 논의할만한 안을 제시할 때 교섭을 재개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곧바로 조정신청에 돌입했다. 사용자들이 충분히 논의해볼만한 수준의 안을 내지 않으면 교섭 결렬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시측 교섭위원은 교섭이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진전된 안을 마련해서 대충지부는 다른 지역과 달리 빨리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10차 교섭 속기록

사용자측 진전된 안 있어야 교섭 재개

사 : 날씨도 무더운데 멀리 오시느라 고생하셨다.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태풍 ‘너구리’가 우리나라를 비껴가고 일본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해서 기분이 좋기도 했다. 오늘 교섭도 맑고 쾌청하게 되길 바라겠다.

노 : 오늘 마련한 안이 있는지?

사 : 오늘 안을 드리겠다. 임금에 대한 부분은 안을 제시해야지 예년처럼 서로 논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시한다. 각 사별로 다르다. 통상임금을 논의하는 곳도 있고, 논의가 되었지만 사정에 의해 중단된 곳도 있고, 아직 시작하지 못한 곳도 있다. 안은 기본급부터 해서 제시하겠다.

<사측 3차 제시안 전달>

노 : 기본급 13,000원 인상인가? 임금체계 개편시 추후 제시라고 한 건 무슨 뜻인가?

사 : 일단 각 사별로 의견이 달랐지만 최저 13,000원으로 하자고 동의한 것이다. 만약에 체계가 변경되면 다른 금액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걸 열어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저희에서는 최저선에 맞춰서 낸 것이다. 지회별로 논의를 열어달라는 신호로 봐달라.

노 : 여러 가지로 고민하기 힘든 안이다. 그 외에 나머지 내용은 추가 안이 없다.

사 : 나머지는 시간을 달라. 지회 소식지를 보니 오늘 결렬이 예고된 듯 하다.

노 : 노조의 지침이고, 지회 단위는 교섭을 열어둘 수 있지만 지부교섭은 오늘 결렬선언을 할 수밖에 없다. 논의할만한 안이 제시될 때까지는 결렬하겠다. 교섭 재

개는 사측이 안을 제시하겠다고든가, 노측이 재개할 시기라고 판단하게 되면 하겠다.

통상임금은 현대차, 기아차가 법적인 부분이 다르다. 그런데도 그룹사 차원에서는 달리 제시하지 않고 같이 하겠다고 한다. 그런 것들이 논의되면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시기적으로 여름휴가 지나서가 될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늦게 된다. 통상임금 외의 나머지 요구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 오늘 이후 교섭은 당분간은 결렬하고 사용자 제시안이 있으면 교섭 재개하도록 하겠다.

사 : 실무 통해서 조율하겠다. 교섭이 쉬는 기간 동안에 사용자 측의 진전된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휴가도 자동차 일정으로 일주일 늦춰진 곳도 있고, 진행이 잘 안되다 보니 지역별로도 차이가 난다. 저희는 회원사가 적으니 힘을 모아서 대충지부는 빨리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회 : 결렬 선언 하셨기 때문에 차기 교섭 일정은 잡지 않겠다.